

금융지주 1분기 실적

KB, 순익 1.9조 ‘사상최대’ 증권 등 非은행 비중 43%

은행·자산운용 등 순수수료이익 45% ↑
2.3조 자사주 소각... 자본시장 선진화 기여

KB금융그룹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1조9000억 원에 달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와 함께 2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전량 소각도 결정했다. 단일 소각으로는 업계 최대 규모다.

KB금융은 23일 2026년 1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89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은행의 이자이익 기반이 안정적으로 관리된 가운데 은행, 증권, 자산운용 등의 순수수료이익이 1조35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5%나 급증하면서 그룹의 실적을 견인했다. 그룹 이익에서 비은행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43%까지 높아졌다.

KB금융 재무담당 이상록 전무는 “전통적 은행 산업에 있어서는 위기로 인식될 수 있는 ‘머니부브’의 물결을 비이자·비은행 부문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며 그룹의 전체 펀더멘털이 한층 더 레벨업 됐다”고 설명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3.94%로 전년 동기 대비 0.9%포인트(p) 개선됐고, 보통주자본(CET-1)비율과 BIS자기자본비율도 지난달 말 기준 각각 13.63%, 15.75%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10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늘었다. 일회성 대규모 총당금 전입 등의 기여효과가 소멸됐고, 이자이익이 안정적으로 관리된 가운데 자산관리 수수료이익이 확대됐다.

KB금융은 이날 발행주식총수의 약 3.8%에 달하는 기보유 자기주식 전량인 1426만주의



서울 여의도 KB금융그룹 전경.

소각을 발표했다. 2조3000억원 규모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상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단일 소각 건으로는 금액 기준 업계 역대 최대치다.

KB금융 관계자는 “의무소각에 대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됐지만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하겠다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법 개정 즉시 소각 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 이사회는 주당 1143원의 분기현금배당과 6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도 추가 결의했다.

한편, KB금융은 포용금융과 동반성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난 1분기 총 8286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지역활성화 분야에서 3481억원, 국민 생활안전 분야에서 3490억원 등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신한, 순익 1.6조... 9% ↑ 증권수탁수수료 3배 ‘썩썩’

증권 중심 비이자이익 큰 폭 개선
균등배당 유지... 1분기 740원 결의

신한금융그룹이 올해 1분기에 1조622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증시 활황에 따른 수수료, 유가증권 관련 실적개선으로 비이자, 비은행 이익이 확대된 영향이다.

23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6226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9% 증가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자이익은 3조2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그룹의 순이자마진은 지난해 1분기 1.90%에서 올해 1분기 1.93%로 0.03포인트(p) 상승했다. 은행도 같은 기간 1.55%에서 1.60%로 0.05%p 올랐다.

비이자이익은 1조18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수탁수수료는 312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5.2% 증가했다. 신용카드 리스수수료는 2258억원으로 같은 기간 9.5% 증가했고, 펀드방카신탁수수료는 1592억원으로 54.7% 늘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증권을 중심으로 비이자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며 영업이익 증가를 견인했다”며 “이자이익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관리비와 대손비용 또한 안정적으로 관리돼 당기순이익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룹 총 여신은 454조1779억원으로 고정여신은 3조6724억원으로 0.81%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0.72%)과 비교하면 0.09%p 늘어난 수치다.



신한금융그룹 전경.

신한금융의 대손충당금전입액은 51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5%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대손충당금적립 잔액은 누적 2조6039억원이다. 신한금융은 ▲2020년 3944억원 ▲2021년 1879억원 ▲2022년 5179억원 ▲2023년 7654억원 ▲2024년 5532억원 ▲2025년 2751억원을 적립했다.

한편 이날 신한금융은 이사회를 통해 올해 1분기 주당 현금배당금을 740원으로 결의했다.

신한금융 재무부부장 장정훈 부사장은 컨퍼런스콜을 통해 “주주환원율은 ROE와 성장률에 연동한 예측 가능한 산식을 기반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분기 균등배당 기초를 유지하는 가운데 향후 3년간 비과세 배당과 주당배당금(DPS)의 연 10% 이상 확대를 추진하고 잔여재원은 자사주 매입 소각에 활용해 주주환원 정책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metro

6월 ‘청년미래적금’ 최초 접수... ‘도약계좌’ 이동 일시 허용

서울 집값 다시 오른다 전세시장도 반등 신호

금융위 일반형·우대형 2종 상품 최초 가입기간 외 갈아타기 불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매달 최대 50만원을 3년 동안 적립하면 최대 2200만원(우대형 기준)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상품 이동도 첫 가입 기간에 한해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부터 최초가입 신청을 받는다. 청년미래적금은 연소득 7500만원 미만의 청년이라면 가입 가능한 ‘일반형’과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이거나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 가능한 ‘우대형’으로 나뉘어 출시된다. 단, 소득 기준은 최초 가입 시에만 고려한다.

‘일반형’은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입금액의 6%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정부기여금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청년

청년미래적금 주요내용	
정책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 2026년 6월 최초가입 시작	
가입대상	청년(만 19~34세) *91년 1~8월 사이 출생예외적 가입 가능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적금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
가입기간	3년(36개월)
지원내용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 지원 6%, 12%

자료/금융위원회

에만 제공된다. 연 금리를 청년도약계좌와 비슷한 6%로 가정했을 때 만기시 최대 2082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연 12% 금리의 적금상품과 비슷한 수준이다.

‘우대형’은 월 최대 50만원의 납입액에 12%의 정부기여금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이거나, 최근 중소기업에 신규취업한 청년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만기시 최대 2197만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는 연 17%의 적금상품과 맞먹는다. 단, 우대형 가입기간 동안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하며, 이직은 가입기간 내 2회까지 허용한다. 가입기간 동안 이직횟수를

초과하거나 조기에 퇴사하는 경우 일반형으로 자동 전환된다.

정책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예외도 허용한다. 올해 중 만 35세가 된 청년에 한해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병역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가입기간 산정 시 연령에서 제외해 심사한다. 또한 국제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더라도 해당 기간 내 육아휴직 급여·군장병 급여 이력이 있다면 소득으로 간주해 가입을 허용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올해 6월 최초가입 시작으로 매 6월과 12월마다 신규가입 신청을 접수한다. 연 소득을 기준으로 정부 기여금을 책정하는 만큼 지난해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신고된 소득이 없는 청년이 우대형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신규취업하는 경우 이듬해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정부의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경우 올해 6월 최초가입기간에 한해 상품 갈아타기 기간을 운영한다. 단, 두 상품의 납입형태가 상이한 만큼 청년미래적금 가입 시 특별중도해지를 허용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납입기간에 정부기여금과 이자

액, 비과세 혜택은 인정된다.

올해 6월 이후에는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재가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했을 때 금리 수준은 높지만, 월 최대 납입액과 가입기간은 더 짧다. 우대형의 경우 청년미래적금이 크게 유리하지만, 일반형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의 월 납입액과 소득 수준을 고려해 상품 갈아타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오는 6월 출시에 앞서 청년미래적금의 막판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운영 당시 후속조치로 출시됐던 ‘예금담보대출’을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출시할 예정이며, 청년주택드림청약 등 다른 청년정책금융상품과의 연계가입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김동환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됐다”라며 “출시에 앞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금리 수준을 조속히 확정해 청년미래적금이 안정적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2월 말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던 송파구 9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전셋값도 틈새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의 4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5% 올라 전주(0.10%)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강남 3구 가운데 송파구는 0.07% 올라 약 두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강남구(-0.06%), 서초구(-0.03%), 용산구(-0.03%)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자치구별로는 강서구(0.31%), 관악구(0.28%), 성북구(0.27%), 강북구(0.24%) 등이 크게 올랐다. 성북구는 김음·하월곡동 위주로, 강북구는 미아·번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는 관악구(0.28%)도 봉천·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전세시장도 오름세로 심상치 않다. 수요일은 꾸준하지만 매물이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계속 오르는 추세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22% 상승해 전주(0.17%)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이는 2019년 12월 넷째(0.2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